

미 국 기 행



원 용 택
<대한사료기획부장>

4. 어느 협동조합의 운영체제

아이오아(Iowa) 주도인 데모인(Des Moines)에서 서북쪽으로 160km를 달리니 고도인 포트 닷지(Fort Dodge)란 곳에 도착하였다. 이곳 한적한 교외에 본부를 둔 Felco land lakes라는 협동조합이 있다. 건물은 별로 크지 않으나 깨끗하고 아담한 것은 바로 농민들의 소박하고 순진한 모임체라는 것을 직감하게 한다. 현관을 들어서니 「환영, 한국축산 시찰단 방문」이라고 쓴 표말이 우리 시선을 끈다. 안내원이 일어나 기다리라고 하며 부책임자인 Jill Yaruarte 씨를 소개한다. Yaruarte 씨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하는데 사무실 한 부

관으로 지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날 때 마다 주위에 있는 남녀직원들이 모두 미소와 간단한 인사로서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그야말로 몸에 배인 친절과 진실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미국에는 유사한 협동조합 체제가 한지역 내에도 여러개가 있으나 각기 특색이 있으므로 농민 스스로가 자기의 기호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여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방문한 Felco land lakes라는 조합의 운영 범위 및 가입 대상은 7개주 즉 Iowa, South Dakota, Nebraska, Illinois, Indiana, Minnesota, Missouri, 등의 30만 농민이 가입되어 있었다. 이들 농민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다음 여섯가지라 하며 이 제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협동조합의 존립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여 준다.

- ① Production 생산(生産)
- ② Purchasing 구매(購買)
- ③ Marketing 판매(販賣)
- ④ Plant person 인사(人事)
- ⑤ Accounting 회계(會計)
- ⑥ Maintenance 지속(持續)

Yaruarte氏は 미국의 농업이란 워낙 대단위 인 지라 외적 내적 여러가지 이유로 공업생산물과는 달리 농사란 모험이라고 표현하기에 나그네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호기심을 북돋우어 주었다.

농민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하에 700개의 단위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조합 하나가 회사의 조직체와 같이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조직체와는 다른 구조체였다.

자본금은 출자가 원칙이나 1/2은 조합원의 직접 출자금이며 1/2은 은행에서 저리로 장기차입하여 충당하여 조합원이 분할상환 한다고 한다. 이윤은 적립하여 사업확장에 이용하며 이윤배당은 조합원 스스로의 이용고에 의하여 배당하여 참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은행차입금 관계는 담보물없이 신용상태 재산상황을 엄밀히 조사한후 지급하여 불신상태는 존



<랜드 오레이크 협동조합
입구에서...뒤에 보이는 건
물위에 시험농장이었다.>

립할 수 없는 것이 미국 사회제도인 것이다. (즉
신용을 한번 잃으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다.)
이들은 동일 지역내에서 약간의 이념차이는 있
으나 유사한 이러한 형태의 조합이 많이 형성되
여 서로 견제하며 착실한 운명으로서 사업번영
을 영유하여 농민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 특이하다.

Felco land lakes에서 행하고 있는 몇가지 사
업을 소개하면

① 조사 사업

이들이 행하는 조사사업은 이론적인 조사가 아
니라 실질적인 시험사업을 뜻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이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대두 품종 개량
사업에 있어

육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 ① 인간의 이용도가 높아야 한다.
- ② 동물의 이용가치가 많아야 한다.
- ③ 생산량 및 성장이 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 포장을 만들어 그 옆에 직접 가
축사육장을 설치하여 가축사양시험까지 하며 농
민들이 직접 견학하여 애로점을 상의하고 좋은
점을 농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었다.

② 토양 개량사업

토양분석 종자생산 토양비옥도 조사를 하기 위
하여 시험포장을 3,000개소나 갖고 있어 지역마
다 시험사업을 전개하여 농민 스스로가 선택의
자유권을 갖는다.

③ 착유공장

큰공장이 2개소가 있어 조합원 생산품을 직
접 착유하며 시험 점포를 설치하여 품질 보장과
선전의 효과를 노린다.

④ 비료공장

하나를 직영하며 20%는 조합원이 이용하며
80%는 타지역에 판매(販賣)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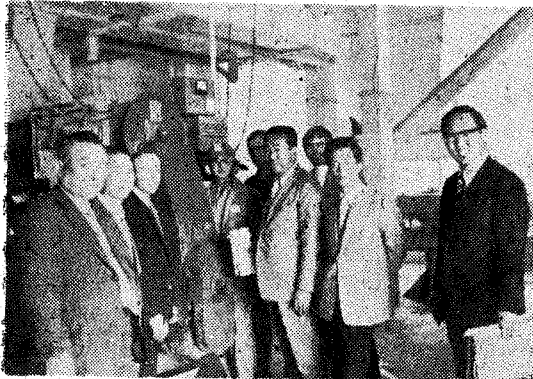
⑤ 사료 공장

8개의 사료공장을 소유하고 배합사료와 인공
유를 생산하는데 이곳의 인공유는 미국에서 유
명하다.

이곳 본부 바로 옆에 사료공장이 있어 1시간
생산량이 60톤 규모(規模)라 하며 사료품목별

생산(飼料品目別 生産) 가지수는 300개나 된다고 하여 무척 놀랐는데 그 이유는 이 곳에서 사료 생산의 주 원료는 조합원(組合員)이 기본원료(즉 옥수수, 대두박)를 가지고 있어 이것에 보충하는 사료를 제조하기 때문에 다양화(多樣化)되었다 한다. 다시 말하면 각 사육자(飼育者)가 원하는 주문사료(注文飼料)에 가까운 형태(形態)의 사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설치(設置)된 분석실(分析室)을 안내(案内)받아 구경하였는데 직원은 4명이며 검사대상은 ① 사료가 생산되어 출하(出荷)되기 전에 일단 검정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② 이곳 공장생산과 조합원 자가생산사료도 검정하여 주며(주로 단백질 미량원소) ③ 무기물 항생제를 주로 검사한다.



<랜드 오레이크 협동조합 본부와 사료공장>

6. 교도사업

본부에는 각분야별 전문교도사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도사가 있어 순회 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에 학계강습을 받아 수료하여 이곳 농촌 지도사 자격을 얻었으나 고달픈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갈려 지도사업에 곤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때에 우리나라 사정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촌지도사업은 자기의 확고한 신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선량한 농민이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生覺)되었다.

이 조합에서 가장 흥미로운 업종(業種)의 하



<콘티넨탈 곡물회사의 30만톤 저장능력의 저장고 이러한 저장고가 미시시피강에 9개소 있다>

나가 바로 자동차 구매사업과 주유소(注油所)를 직영(直營)하는 사업이다. 농촌의 근대화는 바로 신속한 수송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기름 문제는 미국의 농민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5. 남부 뉴 오리언스

미국에 도착하면서 강행군한 일정과 긴장감때문에 일행은 몹시도 심신의 피로를 느낄쯤 다행히도 3일간의 휴양 계획이 있어 미국남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뉴·오리언스를 구경할 수 있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미시시피강 유역을 돌아 공항에 내리니 승객들의 의복부터가 좀 색다

● 미국기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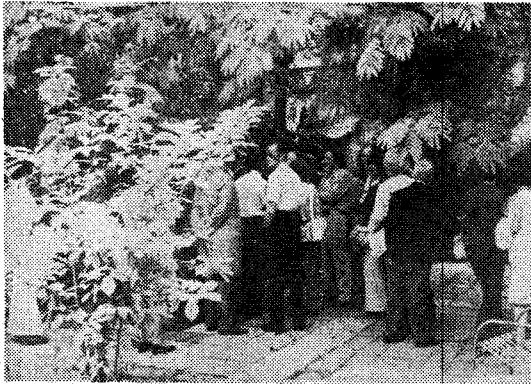
르다. 의복의 빛깔이 강렬한 원색들이 많아 화려한 느낌이고 관광도시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그 푸른 수목은 한층 더 생기가 넘쳐 흐르며 저녁 노을에 반사된 열대식물의 넓적한 잎사귀는 이곳의 흥취를 더욱 돋구어 주었다. 미국의 대도시들을 여러곳 둘러보았지만 기계 문명의 위압감이나 어떤 각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친근한 도시였다. 1717년 Jean Baptiste LeMoyne 씨가 Louis Philippe 불란서 왕(王)으로부터 섭정을 위임받아 「Nouvelle-Orleans」라고 명명(命名)되면서 부터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시가는 멕시코만에서 미시시피강을 170km 거슬러 오르는 곳에 있으며 뒤편은 농업 지대를 엮고 있으며 여러 외국과의 무역하는 물자의 일대 집산지로 되어 있어 뉴욕 다음가는 제 2의 주요 무역항구이다. 인구는 150만이나 이 중의 70만이 흑인이다. 그 옛날 흑인들이 노예 상인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 고달픈 항해 끝에 가장 먼저 닿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3일간 투숙할 호텔은 150년전 어느 부호의 대저택으로 건립한 신구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Charles 가의 초입구의 Sheraton-Charles 호텔로 7층건물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휘황찬란한 산데리아는 눈부시게도 금빛 찬란한 대형의 것이 시선을 끌었다.

2층 발코니에서 못 젊은 관광객들의 시선이 우리들에게로 집중한다. 아마도 동양인의 일행이 특이했던 모양이다. 행동이 위축하여진다. 용기 백배하여 대기 쓰—파에 몸을 도사리고 순서를 기다리나 70이 넘어보이는 제복을 단정히 입은 할아버지가 가까이와 내 짝이 어떤 것이냐고 하며 안내하겠다고 한다. 나그네는 동양지덕의 미를 발휘 무거운 짐을 내가 양손에 들고 일어나니 한사코 자기가 다 가져 가겠다고 한다. 괜찮다고 사양하니 빼앗다싶이 가지고간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짐하나에 25센트의 팁을 위하여 이들은 봉사활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러 시

내에 나가 며칠간 익숙치 못한 양식만 먹었기에 새다른 음식점을 찾으니 우리가 일본인인줄 착각한 안내인은 일본음식점을 소개한다. 한국인임을 밝히고 한국 음식점을 찾았으나 없단다. 할수없이 그대로 안내를 받았다. 이름은 “사무라이 집” 실내에 들어서니 일본식으로 실내장식이 되어 있으며 일본인 고유의 의장을 한 아가씨 3명이 맞이한다. 1명은 미국인, 2명은 동양인이다. 우리가 일본인인줄 알고 일본어로 인사를 한다. 우리도 그들이 일본인인줄 알고 영어로 말하니 이상하게 생각한다. 방안에 안내받아 자리를 잡고 앉으니 밖에서 미쓰리(李)하며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문을 열고 우리도 한국인 이라고하니 이들도 깜짝 놀라 무척 반가워하며 실례하였다하며 언제 이곳에 왔는가 하며 눈물이 글썽거린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일본의복을 양장으로 갈아입고 우리방에 들어와 시중을 하며 무엇 더 요구할 것 없는가 하며 우리 식성에 맞게 이것 저것 음식을 주문하여 요리하여 준다. 며칠안되는 이국에서 식성에 맞는 음식을 많이 먹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나니 한결 피로가 풀린다. 그중 미쓰리는 서울 남산동(南山洞)이 집이라 하며 미국에 온지는 3년이며 아이바이트로 잠깐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것은 어딘자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역사가 짧은 미국에 있어서도 뉴오리언스는 라틴 문화를 신천지에 꽃피우려고 노력한 식민주의자들의 역사적 노력이 완연히 나타난다. 이 도시형태는 셋으로 구분 개발하여 스페인지구, 불란서지구, 미국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영화에서 보기만한 로코코식의 우아한 불란서 지역의 건물안에는 안뜰에 아름답게 꾸며진 테이بل을 놓은 불란서 음식점들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거리에 면한 벽돌의 낮은 가옥도 있다. 이곳을 거닐다 아담한 한가계에 들어서니 정묘하게 장식한 쇠창살이 있는 발코니에 안내 되었다. 보타이를 단정히 맨 흑인웨이타가 갖다준 술한잔을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니 멀리서 들려오는 포장마차의 딸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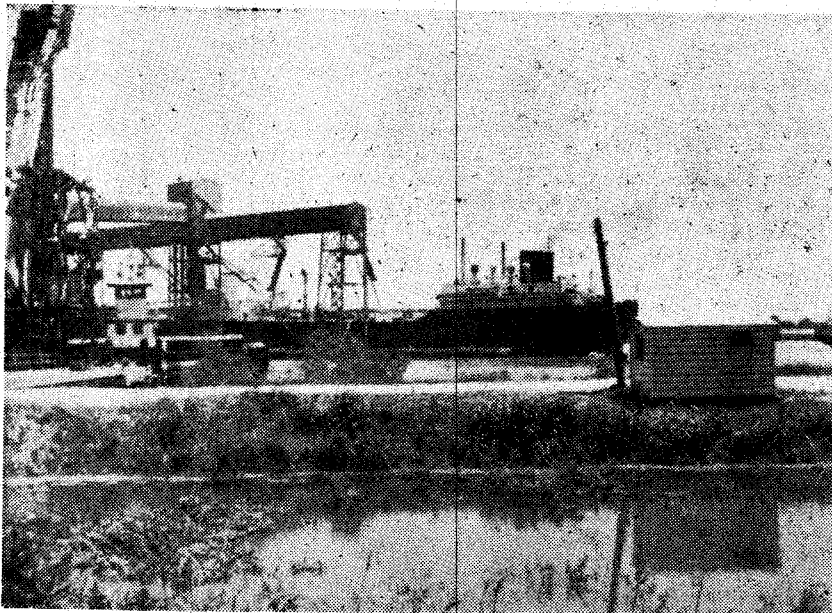


<뉴오리안스 스페인가에 있는 고적>

옛 개척기 시대에 온갖 착각을 느끼게 한다. 디시랜드 찰스로 유명한 뉴 오리언스의 밤거리의 으뜸은 버본가(Bourbon St)이며 그 거리를 지나만가도 절로 흥취가 나며 걸음거리 마저 흔들거린다는 소문이 있다. 길 양옆에는 주점과 빠, 그리고 섹스영화관이 즐비하여 서 있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밴드의 소리는 그야말로 광란의 거리이다. 지나가던 노부부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속삭이며, 산책하는 젊은 연인들, 핫팬츠만 입고 옷통을 벗어재친 젊은이, 나그네와 같이 점잖게 애써 기분을 억제하던 우리들도 주점 앞에서 노출

파 아가씨의 워크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소를 금지 못했다. 마침 휴일인지라 낮 막 할 것 없이 이 거리는 온통 북새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광란속에서도 구슬피 울리는 트럼펫 소리에 이끌려 드러다 보니 밴드맨이 모두 흑인이다. 이곳이 뉴오리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찰스연주장이라고 한다. 이곳에서의 가장 큰 인상과 매력은 이들이 연주하는 디시랜드 찰스였다. 디시(Dixie)는 찰스음악의 원조로서 이곳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본래 디시는 흑인의 것이었다. 옛날 흑인 노예들의 학대 받았던 생활과 우울한 고민, 향수 어린 고향의 꿈등의 감정을 표현한 애조를 띤 멜로디로서 악보없이 즉흥적으로 가락이 흘러나와 이루어졌다 한다. 지금도 많은 흑인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폐를 지어 이 디시를 연주하며 고달픈 피로를 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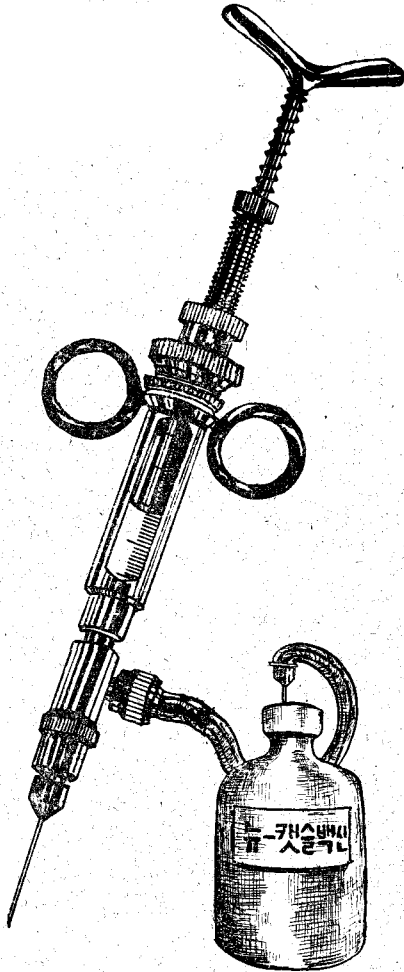
밭길을 둘러 스페인지구에 들어가면 불란서 지구와는 달리 음산하다. 이 지역은 1900년에 스페인으로부터 5,000만 불에 미국정부가 구입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오랜 고가인 지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었다. 역사가 짧은 정부에서는 유적으로 지정 신시대 문명에 물들은 후손을 위하여 옛선조들의 겸손한 생



<벨트콘베어에 의해서 선적되고 있는 옥수수, 이때는 소련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신발매

양계용 연속주사기입하 (독일제)



덕수가축약품상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344-3
TEL. 28-0645

활과 개척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어 이들이 얼마나 옛 것을 아끼고 교훈으로 삼고 있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지역의 명소 성 루이대 성당이며 카빌도(Cabildo) 박물관은 이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미시시피강은 미국의 젖줄이다. 이 강에 얼킨 무수한 고사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강이 얼마나 미국에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는 이곳에 와서 절실히 느꼈다.

마침 상류지방에 1개월째 장마가 들어 시뻘건 황토물은 바로 양옆 호안을 침범 하려고 넘실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옛 미국선조의 운송수단의 하나인 증기 기선을 타고 이 유역을 선유하였다. 300명이 탈수 있는 마야크트웨인호는 구슬픈 기적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선 눈에 떠는것이 2~3만톤 이상되는 큰 화물선이다. 강안(江岸)전체가 부둣가라하여도 실연이 아닐정도로 큰 배들이 즐줄히 정박해 있는 것이 옛날 한강 놀이터에 여름철에 늘어진 보트장과 같았다. 선장이 마이크에서 설명을 한다. 저 배는 지금 쏘련으로 가는 곡물을 싣고 있다고 하는데 골목은 보이지 않는다. 싸이로와 늘어진 교각밖에 없는데 신는 사람도 없다. 다음날 콘티넨탈에 가서 의문이 풀렸다. 모든것이 기계로 자동적으로 싸이로로 부터 배까지 처리된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을가 부럽기만 하다.

세계에서 제일긴 미시시피강은 그 풍부한 수량(水量)과 아울러 미국의 대동맥이고 보고(寶庫)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다음호에 끝>

1974년 옥수수 10% 증산 예상

미 농무성이 10월 17일에 발표한 1974년도 (1973. 10~1974. 9) 농산물 수급예상에 의하면, 옥수수는 명년에 10% 증수하여 년도말 재고를 금년의 1,840만톤보다 38%가 많은 2,538만톤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소비는 금년보다 7% 증가한 1억 2,766만톤에 반하여 수출은 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